

# 원희룡 불출마로 빈자리... 여·야 공천 경쟁부터 치열

사진은 정당·무소속·가나다 순

### 더불어민주당 후보 6명 내년 경선준비 세걸집 국민의힘 외부 수혈 해신... 공직자 출신 포진 정의당·무소속 등 주자들 출사표 파괴력 주목



김태석 문대림 박원철 송재호 오영훈 위성근 고경실 김방훈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지사 예비후보로는 현재 16명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대권도전을 위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도지사 자리'를 놓고 여야 후보들간의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

있다. 송 의원은 이재명 캠프 제주지역 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다. 오 의원은 이낙연 대선캠프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고 문 이사장은 국가 공기업 수장으로 대선 지원 활동에 나서지 못하고 있으나 지난 지방선거에서 문 이사장을 지원했던 측근들이 이재명 제주캠프에서 포진해 있다.



김용철 김의근 허향진 고병수



문성유 박찬식 안동우 오홍식



김태석 문대림 박원철 송재호 오영훈 위성근 고경실 김방훈



김태석 문대림 박원철 송재호 오영훈 위성근 고경실 김방훈

▶더불어민주당=송재호(제주시 갑)·오영훈(제주시 을)·위성근(서귀포시) 국회의원과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이사장, 김태석 전 도의회 의장, 3선의 박원철 도의원(한림읍)이 체비를 하고 있다. 이들 후보 가운데 오영훈 의원과 문대림 이사장, 김태석 전 도의회 의장은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열릴 예정인 제주지사 경선에 대비해(지난달 31일 마감) 권리당원 모집에 주력했다. 문 이사장과 오 의원, 김 전 의장의 지지자 약 5만여명이 입당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제21대 총선에 이어 다시 전략공천을 노리고 있으나 "두번 공짜(전략공천)는 없다"는 당내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앞으로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주목되고

이재명 대선캠프 상황실장 및 농어업먹거리미래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위 의원은 지방행정보다는 당분간 국회에서 국민과 도민을 위한 입법활동에 비중을 두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내년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다. 김 전 의장과 박 의원은 그동안 다선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발전 방안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민의힘=허향진 제주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이 지사 예비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허 권한대행은 지난해 제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송재호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은 바 있고 앞서 2018년엔 원희룡 제주도정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윤석열 예비후보 대선캠프(국민캠프)에서 제주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경실 전 제주시장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고 전 시장은 지난해 총선에서 제주시 갑선거구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출마했지만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다. 홍준표 대선후보의 'JP' 희망캠프에서 제주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방훈 전 제주시장 역시 세인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마했으며, 홍 예비 후보의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에 도당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김용철 공인회계사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김 회계사는 제16·17대, 제21대 총선에 출마한 바 있다. 김의근 전 제주컨벤션센터 대표이

사도 출마 의사를 밝혔다. ▶정의당=고병수 전 제주도당 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가정의학과 의사인 고 전 위원장은 정의당 중앙당 상설위원회인 건강정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무소속 및 기타후보=박찬식 시민정치연대제주지회 공동대표(제주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상임 공동대표)가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박 공동대표는 시민정치연대제주지회 내부 심사를 통해 도지사 예비후보로 확정됐다. 이외에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출신인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도 거론되고 있다. 제주출신인 문 사장은 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기획재정부에서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보냈다. 오홍식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회장도 거론되고 있다. 제주도 부시장을 역임한 오 회장은 "현재 코로나19 재난구호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정치문제는 이후 고민을 하는 게 바람직 하다"고 전했다. 원희룡 제주도정에서 정무부지사를 역임한 안동우 제주시장은 선거 조직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거 쟁점 및 변수=내년 3월 대선 결과가 제주지사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월 대선 후 대통령령직인수위가 출범하고 이어 5월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새 정부가 출범한다. 새 정부 출범 분위기는 6월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선에서 승리한 정당의 도지사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 당내 경선 후유증도 변수다. 지난 2018년 6월 치러진 민주당 제주지사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면서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 진영이 원희룡 제주지사를 지지하는 일이 벌어졌다. 여야 후보들이 경선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이같은 사태가 되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제주 제2공항 문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제2공항 강행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대안을 찾고 있다.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행정시장 직선제·행정시장 러닝메이트제도 도지사 선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고대리기자 bigroad@ihalla.com

## 다자대결 양상... 보수 단일화 초미 관심

### 이석문 교육감 3선 도전 "연말연시 입장 밝힐 것" 고창근·김광수 제도전... 교육의원 후보도 주목

차기 제주교육 수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제17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선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8개월여 앞두고 현재 거론되고 있는 출마 예상 후보군은 5명 정도. '현역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3선 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전·현직 교육의원들과 교육관료들이 출마 의지를 내비치며 다자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현역의 유리한 고지에 선 이 교육감은 출마에 대한 확답은 피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거론되는 후보 중 유일한 진보성향 후보로 분류되는 이 교육감의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이 교육감은 연말연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2014년과 2018년 선거에서 각각

고배를 들었던 고창근 전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도 김광수 전 교육의원도 출마 의지를 굳히고 설욕전을 벌이고 있다. 이와함께 초선의 김장영·김창식 교육의원도 출마 의향을 밝히고 있어 행보가 주목된다. 출마 후보 물망에 올랐던 재선의 부군남 교육의원은 최근 교육의원 출마로 마음을 굳혔다. 이 교육감이 출마를 선언할 경우 현역의 수성과 도전자의 공성이 예상되는 내년 교육감 선거의 최대 관전포인트는 이 교육감에 맞서는 후



이석문 고창근 김광수 김장영 김창식

보들간의 연대 및 단일화 여부다. 현역인 이 교육감에 맞설 중량감 있는 대항마가 필요한 상황에서 다자 대결보다 양자 대결이 승산이 있기 때문이다. 도지사·도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지면서 상대적으로 유권자들의 관심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교육감 선거에서 인지도를 쌓은 '현역'이라는 이점은 큰 영향을 미친다. '인물

경쟁력'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현역의 아성을 깨기 위해 선거 관세를 흔들 변수로 도전자들이 '단일화' 카드를 꺼내드는 이유기도 하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당시 고창근 전 교육국장, 김광수 교육의원, 윤두호 전 교육의원, 고재문 전 제주교육총회장 등 보수성향 예비주자로 거론되던 인사들이 사실상 '반

(反) 이석문 연대'를 표방하며 단일화를 이룬 바 있다. 단일후보로 추대된 김광수 후보는 낙선했지만 이석문 후보와 초박빙 접전을 벌였다. 도전자들이 설욕 의지를 드러내는 만큼 향후 다시 한번 보수(성향) 진영의 단일화가 이뤄질지, 2014년 선거 때처럼 다자대결 속 승부수를 띄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온오피기자 eioh@ihalla.com

## 진정한 제주출의 보약

#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마늘·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연작장해 토양 소독 살균**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인효과 높은 저항성**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용량 : 20kg

**달팽이추출물 핵심물질**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탈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냉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펄빅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과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GA**

얕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왁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키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NAVER D.O.M** **코코리** 검색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